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5

1996

충현의 만나

출애굽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5

1996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출애굽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가 속히 부임될 수 있도록
2.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도록
3.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6.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7.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8.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6년 5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출애굽기 서론

출애굽기는 구약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을 따른 것이다. 이 명칭은 출발, 탈출을 뜻하는 엑소더스이다. 창세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하며 상호 연속성을 가진다. 저자는 여호수아 8장 31절에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명령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였듯이 출애굽기를 비롯한 오경의 저자는 모세이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뒤에 연결되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는 야곱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주전 1875년경)부터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기까지의 431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야곱의 자손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새로운 정치 체제하에서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다. 바로는 이들을 영구히 노예화할 방도를 모색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세를 통하여 구원계획을 성취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란 단지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함을 받은 사실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구속'이다.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노예상태로부터 구속하시고 그들 중에 임재하셔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활동이 본서의 핵심이다. 성경의 구원사상은 출애굽의 언약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과정을 통해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며 동시에 그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임을 계시하였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1:7)

출애굽기 첫머리에 나오는 야곱의 자손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본문은 70명의 야곱의 혈속이 애굽에 내려가 요셉과 그 형제들은 다 죽었으나 야곱의 후손들은 점점 생육하고 강대하게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매우 번성하게 되었음을 네 가지 어휘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대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2절에서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과 축복의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세우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여 온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이 가해지고 산야제한으로 억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때나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 강하게 하시고 경외케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면서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든지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 기도 /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경외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우리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혼탁한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²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2:24,25)

본문은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은 모세의 기사입니다. 모세는 두 번의 위기를 맞았는데 첫번째는 태어나면서 만난 위기로, 두 번째는 바로의 왕자로 장성하여 당하는 위기입니다. 그는 동포애로 인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게 되어, 그 결과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23,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모세가 가정의 삶으로 위로를 삼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 기도 / 이웃의 고통당하는 것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지체가 모세와 같이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기력이 쇠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금) 모세의 소명

찬송 / 497장 본문 / 출 3:1-22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3:12)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광경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결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정을 7-9절까지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하시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사양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데도 계속해서 사양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모습일까요? 모세는 오늘에 삶에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강권하십니다. 안한다고,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 부르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고 용기를 주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라' 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도 /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가라'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선포할 당회장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4:31)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두려워하며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주시고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는데 이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한 이적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 욕지에 부은즉 피가 되는 이적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에 능치 못하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말하는 자로 세우사 모세와 함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고하시고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능력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겸손히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 기도 / 우리의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히 충성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매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함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⁷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 _다 (5:1)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고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서 벽돌 소용의 짚을 주지 않고 짚을 줌게 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벽돌 수효는 전과 같이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바로에게 호소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간다고 하니 일을 더욱 고되게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대들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여서 박대를 받게 되고 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고난을 고하면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어린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시며 넓은 마음과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6:7)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역사의 흑독함을 인하여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땅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드렸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때그때 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확인해주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고쳐가시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 기도 /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게 하소서.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 』(7:13)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의 섭리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정에서는 궁극적인 약속과는 다르게 보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바로에게 여러 큰 재앙을 내리실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서 드디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줄 것입니다. 그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에게 신 줄을 알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이적을 행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피 재앙'을 보고도 끝내 바로는 그 강박함을 풀지 않았습니다. 금방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번 실패와 실수를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방 기도의 응답이 안된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금방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교회직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인내와 온유의 성품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8:28)

애굽 전역은 하나님의 네번째 재앙으로 인해 수많은 파리떼로 뒤덮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바로는 모세에게 백성을 보내줄 것처럼 약속하면서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가 제시한 조건은 성도에 대한 사단의 교묘한 유혹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악의 땅에 영원히 머물게 하려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자 다급해진 바로는 25절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을 약속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을 영원히 노예화하려는 전략이 숨겨진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배받으시기 원하신 곳은 죄악의 땅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전에 먼저 지금 머물고 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둘째, 언제든지 죄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조건입니다. 바로는 두 번째로 28절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신축성 있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 또한 바로의 간계로서 언제든지 군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들이려는 패역한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라는 말에 매력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세상을 적당히 혼합하여 삽니다. 신앙에는 ‘적당’이란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악의 땅을 완전히 떠나야 하는 냉엄한 결단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결코 세상과 타협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땅을 완전히 떠나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시다.

▶ 기도 /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악의 땅을 떠나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교구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 ♫ (9:30)

모세는 강박한 바로 왕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 험악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가 바로와 애굽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웃의 삶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 없이 성도는 모세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모세는 우박 재앙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29절).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주권을, 오직 그분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임을 온 세상에 알립니다.

셋째, 성도는 세상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30절). 그럼에도 모세는 그를 위해 진실로 기도했습니다(33절). 항상 이웃에게 진실한 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이며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세상을 삽시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소개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합시다.

▶ 기도 / 세상에 대해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제체의식으로 서로 도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10:3)

바로는 일곱 번의 재앙을 받았지만 자신의 완악함을 깨닫고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며 급기야 모세를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왜 그가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합니까?

첫째,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지람은 그가 아직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고, 이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잠 16:18).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진력해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합니다. 둘째, 고집 때문입니다. 바로는 지금 여덟 번째 재앙을 당하기 직전,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신하들에게서 조차 원망 섞인 말을 들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궁지에 몰려 있었지만(7절) 그는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죽음의 재앙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고집부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 고집부림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행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철저한 패망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교만, 고집은 하나님에 의하여 철저히 부수어 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거나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기도 / 나의 교만과 고집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도록 삶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11:8)

모세는 불의한 상황과 완악한 바로의 성품을 보고 죽음의 재앙에 대한 최후의 경고를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모세의 의로운 분노는 불의하고 타락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감정 처리에 관해 좋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수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악하여 자신의 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결코 주눅이 들어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무릎 꿇어서는 안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완악한 사람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발하여 그를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둘째,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죄악 투성이인 세상을 향해 의로운 분노를 터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조건 세상에 대하여 분을 발하고 그들과 대항해 싸우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의분을 내기에 앞서 성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할 의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끊임없는 권면과 인내를 기초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의분을 통해 세상에 죄의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세상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 기도 / 화나는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손상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성실과 인내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12:13)

어버이날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유월절 만찬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유월절 음식과 출애굽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인류 구원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열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대속적 의미를 지니며, 그 어린 양은 인간의 죄를 짊어진 속죄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속사역의 모형이며, 범죄한 인류의 대속은 오직 피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속죄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8-19)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날,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면서 교제했듯이, 예수님의 피를 중심에 두고 말씀과 기도로 생명이 넘치는 교제를 나눕시다.

▶ 기도 /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각 교구마다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족 구성원간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 지도록 각 가정을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12:51)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장면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이었고, 그 계획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백성 뿐만 아니라 생축까지 구원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두 손에는 은, 금, 패물이 넘쳐났음을 보여줍니다. 이같은 장면은 430년 전의 기근으로 인해 초라한 모습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그들의 조상 70명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의로움과 행복과 하늘의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찾게 하셨습니다(히 2:15). 그리고 죄악의 고통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순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삶,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삶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 기도 /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길 수 있도록 비전과 새 힘을 주소서. 남녀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활성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13:21)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우회 길인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멀고 험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각종 시험과 시련으로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만한 성숙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신 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각종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휴식처가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른손에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 기도 / 우리의 가정, 구역,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타락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멀리함으로 낮아짐의 자리에서까지 이룬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14:13)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며, 한 발자욱도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치 앞은 홍해바다요, 뒤는 애굽군대가 있어 전진도 후퇴도 못하는 문제에 빠집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장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의 대적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왕하 6:16).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친히 “두려워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사 41:10).

두번째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보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낙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조급함에도 경솔함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다만 가만히 서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위험이 다가올 때 그 문제만 보면 실패하지만 그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어려운 사건들 앞에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가정, 구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와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 ...』(15:2)

본문은 하나님이 연출하셨던 홍해 대역전극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모세와 백성들이 한입을 모아 하나님의 위업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생활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노래하는 삶, 이 삶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놀랍게도 성도는 이런 삶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찬송하는 이스라엘을 봅시다. 그들의 즐거운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이처럼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대적을 섬멸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보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찬송이 없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것, 미움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 이기적이던 내가 타인의 고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주목하십시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 삶에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것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점자와 수화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15:26)』

본문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나마 발견한 마라의 샘에서 쓴 물을 얻음으로써 빚어진 원망의 모습, 쓴물을 단 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메시지(25, 26절) 및 풍부한 물과 훌륭한 쉼터가 있는 엘림에서의 휴식(27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갈증으로 목이 타고 결국 죽게 됩니다. 광야길을 가노라면 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도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부족함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을 인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타서 헉헉 거리다가 겨우 발견한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물이 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모든 변화와 치료의 주체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와 고통을 변화시키시는 주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쓰디쓴 절곡의 현장에 버려두시기를 원치 않고 결국에는 풍부한 쉼터가 있는 안식처로 인도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 물을 마실지라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서만수(인도네시아)의 사역과 건강(신장)을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16:12)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원망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진노의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항상 음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음으로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고, 또 안식일에도 음식을 거두려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는 연약한 성도의 일면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범죄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원망은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모세는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동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현재에 처해진 불안한 환경만 바라보니 원망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불순종은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손길을 수없이 보고서도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는 그들을 보십시오. 그 불신앙적 욕망에 찬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 봅시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삶의 동기를 점검하여 믿음의 삶을 이룩하십시오.

▶ 기도 /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신앙적인 고백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열매를 충실히 맺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16:32)

만나로써 매일의 양식을 충당하던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의 문제가 대두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만나 공급이 있는지 육일째 되는 날 백성들은 뜻밖에도 평일보다 두 배나 되는 만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수확에 당황한 이스라엘 두령들이 곧장 모세에게 진상을 보고하게 되고 모세는 계시된 바 있는(5절) 안식일 규례를 가르침으로써(23-26절)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27-30절). 이러한 안식일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사실과 안식일과 같은 거룩한 규범들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광야 여행 중 내내 공급하셨던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 보관하도록 명하셨습니다(31-33절). 이 명령에 따라 아론은 중거판과 함께 만나를 보관하여 대대손손이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토록 했습니다(34-36절).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과 은혜의 증거물을 기념케 하여 그것을 자손대대로 물려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명령하신 까닭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구히 간직하여 당신을 영화롭게 경배하도록 함이요, 과거의 은혜를 화석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는 모든 세대에 현재화, 실체화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까?

▶ 기도 / 우리에게 주셨던 신앙의 체험들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도 잘 깨닫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돕고 있는 수단형제들이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 온전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기름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17:15)

‘여호와 닛시’는 ‘여호와와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시대 당시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있을 때마다 모든 군대는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관의 깃발을 보면서 그 지휘에 따라 싸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깃발은 전장에 나서는 모든 군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며 동시에 강한 소속감을 심어 주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의 이 말쑤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어려운 대적 아말렉을 물리치도록 도우셨던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그 모세의 손을 곁에서 함께 붙들며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수종들으로써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체적인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전장에 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를 돕고 있는 아론과 훌의 겸손한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여호와 닛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여호와 닛시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에 함께 하시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일들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 오매 …』(18:12)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장인인 이드로의 방문과 그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향하면서 자신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인 이드로에게 맡기고 갔었습니다(출 4:24-26). 이들과 함께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를 전해 듣고 자신이 가졌던 이방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9-11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며 감사하였고,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축하하며 그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12절).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귀중한 충고를 하여 주었습니다. 실제로 점차 증가되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혼자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모세는 이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서 전체적인 조직을 재편성하였고,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보다 체계적인 공동체적 생활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서는 귀한 신앙의 체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이 현지인 교회에서 더 나아가 인디언들의 선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 삼일을 기다리고 ...』(19:15)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시내산 기슭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실제적인 언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워지기 직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귀중한 준비자세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의미의 축하 잔치나 많은 양의 헌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별함의 모습은 단지 내면적인 경건함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단히 외면적이고 육체적인 요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성별할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죄악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성결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겠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보다 중요한 목적인 내면적인 성결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외면적이고 육체적인 성결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이 되어서 심각한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결함을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겸손히, 그리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으로 중국의 내지 깊숙한 곳까지 복음이 증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20:2)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율법 곧 십계명을 전달받는 모습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시고자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이 단지 열 개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23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제반 율례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계명을 철저히 순종해야만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결코 창조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구속주의 사랑으로써 계시하신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연약한 인생들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우리의 발걸음을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참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옵소서.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에 복주시사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안식하며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21: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서'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23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언약들을 낭독케 하시고, 24장에 가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어떠한 내용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의 기본 내용은 20장에 있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에는 우리가 흔히 '시민법'이라고 부르는 사회적인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들을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법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원리와 정신에 입각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올바르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법들을 살펴볼 때에 이 법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고, 만인평등 사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도 /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존중히 여기며 살 수 있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의료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본에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22:21)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거역하는 자식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죄짓는 것을 단호하게 처벌하셨습니다. 이는 가능한 한 고의적인 죄를 짓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의식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해를 입힌 것을 갚도록 하셨으며, 심지어 사람이 도적질을 한 경우에는 4~5배의 배상을 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남자가 처녀를 유혹하여 동침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결혼을 반대할 경우에는 배상금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함께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자들을 직접 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권위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에 공의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며,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권위를 존중하고, 공의롭고 거룩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게 하소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교회에 담임목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² 너는 매년 삼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 (23:17)

하나님께서서는 특히 사법부의 공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허망한 유언비어를 전하는 일을 금하셨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과 재판관들이 신분이 높은 자의 편을 들거나, 뇌물을 받고 그들 편이 되어,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규례들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매년 세 차례 드리는 절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칠 년째 되는 해에 모든 땅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을 갈아서 먹게 하셨으며,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육신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리도록 배려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과, 보리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 그리고 모든 곡식을 저장한 후에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 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더욱 더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기도 / 우리들이 삶 속에서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 주일과 절기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24:8)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23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시민법을 말씀해 주신 후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아론의 아들들과 70인 장로들을 같이 올라오게 하였고 그들은 멀리서 경배하게 하시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 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모든 율례들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언약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엄숙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이스라엘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 또는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말은 바로 이 옛 언약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이 율례들을 전혀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폐해 버리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기도 /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사역을 통하여 현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5:22)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상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제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세밀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이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예물들은 신약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상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본 장에 나오는 성막에 있는 기구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모든 것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언약궤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으로 그 위에 그룹으로 덮여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진설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교통을 의미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내며, 어두운 세상의 참 소망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금촛대가 있었으며, 이 촛대의 모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의 생활은 거룩하신 말씀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세상에서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 등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입니까?

▶ 기도 /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800만 우상의 세력들이 물러나고 일본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26:33)

성막은 바로 새운 널판들과 그 위에 네 겹으로 된 양장들을 씌워서 지어졌습니다. 천정을 이룬 제일 안쪽의 양장은 색 무늬로 장식한 것이었고, 두번째는 염소털로 된 양장이었고, 세번째와 네번째 양장은 각각 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된 양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막을 받칠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은받침대에 끼워 넣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색무늬로 되어진 양장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주권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널판들을 은받침에 끼우는 것은 구속에 기초를 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삶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름하는 휘장이 준비되는 일이었습니다.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구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휘장에 사용된 재료와 색깔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이 휘장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릴 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하는 구별의 장벽이었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번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장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은 새롭게 열린 생명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 생명의 샘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두겹고 무겁게 드리워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던 날! 그 이후로 우리들은 휘장 안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맘껏 누리고 있습니까?

▶ 기도 /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한을 돌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감람으로 짚어 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27:20)

본 장에서는 성막을 두르고 있는 뜰과 장막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놋단입니다. 놋단은 제사를 기초로 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으로 드러졌을 때, 십자가에서 드러지던 뜨거운 희생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막 주변의 뜰에 준비되는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단들은 모두 동일한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성막의 입구에서 있는 단의 경우만은 놋으로 썼습니다. 조각목에 놋을 입혀 만든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전체적으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깥 뜰의 길이는 50야드요, 그 폭은 25야드였으며, 고운 세마포로 된 막으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세상 사이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했습니다.

문 입구에 걸여 두어야 하는 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과 비슷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각 문 밖에서 있는 예배자들에게 완전하게 깨끗함을 얻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뜰 안에 있는 중보의 상징물인 번제단을 통해서만 헌신의 단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방법으로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감람으로 짚어 낸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항상 켜놓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순전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빛을 비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격의 심지에도 이같은 하나님을 위한 불을 붙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불꽃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며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게 하시고 주일을 사모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 』(28:2)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임을 수행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제사장의 의복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은 전적으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순결함을 의미하는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든 속옷과, 제사장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의미하는 청색실로 만들어진 에봇이며, 제사장은 그의 사역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방울과 석류가 옷 가장자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패가 붙어 있는 관을 썼으며, 견대에는 각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를 붙임으로 제사장은 그들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호마노처럼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붙였습니다. 이 흉패 안에는 신비한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문자적으로 ‘저주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우림이 나오면 부정의 뜻이며, 둠밈이 나오면 긍정의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이러한 장신구들이 달려 있었던 것은 제사장은 자기가 중재하는 백성들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함을 의미하였으며, 또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찾으며 사모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셨으며, 우리의 이름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분의 가슴에 영원히 달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같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5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6월에도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8 과

하나님의 나라 두번째 간구

읽을 말씀 / 마태복음 6장 33절

누가복음 17장 20-21절

찬 송 / 246장, 307장

“나라이 임하옵시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마 6:33)고 하신 교훈의 요약이며 주기도문의 중심입니다. 이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실현에 있었습니 다. 시작=“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 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5) 중간=“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끝=“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

1.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2. 예수님의 첫 설교와 마지막 설교에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막 1:14-15; 행 1:2-3)

“나라”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마음의 천국’을 말하였습니다(롬 14:17).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습니다(롬 8:19). 예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히 10:12-13).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요 18:36).

3.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 시 103:19

(2) 시 68:1

이 기도는 온 우주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돌리려는 간구이며, 세상 권세자들의 배후에서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① 인간의 모든 불행을 가져오고 ② 세상을 비참하게 하며 ③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우상숭배, 미신, 오류, 망상, 무지, 신성모독, 증오 등을 없애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요 원수들이 굴복하는 나라입니다(계 19:6).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달라는 기원입니다. “임하옵시고”는 홀연적 내림을 뜻합니다. 오순절 성령 역시 홀연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크고 급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임하옵시고”의 최종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며 현세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 마 11:12

(2) 롬 13:1-3

(3) 마 28:18-20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쫓는 것은 비누로가 아니라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힘은 기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모하는 자는 침노할 수 있고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호나티우스 본나르는 “주여, 오늘 낮에 오시렵니까?”하고 커튼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주여, 이 밤에 오시렵니까?”하며 커튼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롬 13:1-3).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먼저 믿은 자들이 나팔수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능합니다. L.A.의 ‘세계 선교를 위한’ 미국센터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① 방송으로 전세계를 덮자 ② 성경으로 전세계를 덮자 ③ 선교사로 전세계를 덮자 ④ 교회로 전세계를 덮자 ⑤ 성도로 전세계를 덮자. 우리 교회도 비전을 가지고 역삼동을, 서울을, 한국을, 전세계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1.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세상 침울함과 어두움의 세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 화평이 있습니다.

싸움, 상호불신, 전쟁이 없어집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뎌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6-9).

3. 화락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눈물, 슬픔,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19 과

하나님의 뜻 - 세번째 간구

읽을 말씀 / 마태복음 6장 9-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찬 송 / 431장, 464장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길 구하는 내용입니다. 뜻은 '의지(will)'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천사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뜻에 항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 사람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전7:14)

2. 그러나 무엇 만큼은 반드시 이해하도록 힘써야 합니까?(엡 5:17)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손색 없는 생을 살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롬 12:2)

4.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과 같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회, 즉 하늘 나라를 말합니다. 하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는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고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03편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뜻을 받들기 위해 기다리다가 주님의 분부가 떨어지기만 하면 분주히 실천하는, 즉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 적용, 복종되는 하나님의 사회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5.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합시다.(사 55:8-9)

종종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뜻

이 우릴 위한 하나님의 뜻보다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은 행할 때 아름다운 가치가 회복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 6:38-39).

6.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살전 4:3)

7.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장소와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마 6:10)

- 장소 -
- 방식 -

8.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요일 2:17)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기도며, 평안과 소망의 간구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부조리의 제거를 바라는 기도이며, 천국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복음증거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고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 20 과

일용할 양식 - 네번째 간구

읽을 말씀 / 마태복음 6장 9~13절

전도서 5장 19절

찬 송 / 451, 234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 공부한 부분은 무엇보다 기도의 우선적 관심이 하나님 자체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성도의 1차적인 관심이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십계명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치시면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간구와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를 말합니다. 주기도문 첫째 부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므로 시작하였으나 둘째 부분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1. 일용할 양식의 기원은 무엇입니까?(출 16:4)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를 시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를 거둔 사람들과 과다한 욕심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하였습니까?(출 16:17-20)

- 1) 순종한 사람
- 2) 불순종한 사람

3.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잠 30:8)

4.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잠 30:9을 다함께 읽어 봅시다)

식욕은 인간의 제일 욕망이요, 육신 생활에 기본이 되는 것이 의식주인데 그 중에서도 양식은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식의 공급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고 맙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기도후 광야에서 제일 먼저 당한 시험이 떡의 유혹이었습니다(마 4:3).

가난한 생활을 하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양식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예수의 참된 교훈이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간구입니다.

5. 그렇기에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입니

까?(마 6:31-34)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마 6:31-33). 탐식하는 것도 죄입니다(잠 23:2-3). 믿음 안에서는 언제나 오늘이 귀한 것이며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후회없는 삶을 살아 가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가난한 자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의 개념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이며 한편 물질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딤후 6:8; 히 13:5).

6. 또한 우리에게는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신 8:3, 마 4:4)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용할 양식(하나님 말씀)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마 4:4). 매일 기도하며 성경을 4장씩(5p) 읽으면, 약 300일이면 신구약성경을 한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또한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을 읽으면 일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가장 먼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분명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말씀은 영혼의 완전한 양식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란 숨을 내쉬듯 나의 죄를 고백하고 숨을 들이 마시듯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삼상 12:23).

제 21 과

사죄의 기도 - 다섯번째 간구

읽을 말씀 / 마태복음 6장 9~13절

시편 51편 1절

찬 송 / 337, 258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롬 3:10). 구원 받는 신자도 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신령한 삶을 산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타인의 죄를 용서하면 나의 죄도 용서받는다 말일까요? 우리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가르치는 용서의 정신은,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사는 자는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만큼 신령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원문에 '빛' 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23이하, 누가복음 7:41-43에서 각자 죄를 빛으로 비유하여 해석했습니다.

1. 다섯 번째 간구, 그리고 사람을 위한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2. 이 세상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요일 1:8, 10)

3. 죄사함 받는 것은 인생최고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시 32:1-2을 찾아서 함께 읽어 봅시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준비 기도입니다. 죄사함 받기 위한 기도는 신자들에게 가장 긴요한 기도입니다. 이미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흰 눈같이 깨끗하게 되고(사 1:18)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롬 5:9-11; 롬 10:9-10).

4. 죄를 품고 있는 자는 어떠한 고통에 빠져 있을까요?(시 34:3-4)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죄의 고통 속에서 날마다 허덕여야 할 우리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문제와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5.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요?(마 6:14-15)

6. 도대체 형제의 잘못을 언제까지 참고 용서하여야 합니까?(마 18:21-22; 눅 17:3-4)

주위의 형제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고 계십니다. “어찌 이럴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지만 해결은 고사하고 더욱 어려워지는 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만군의 주이심을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 22 과

악(유혹)에서의 보호하심 - 여섯번째 간구

읽을 말씀 / 마태복음 6장 9~13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편 19편 13절

찬 송 / 432, 253

1.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져 죄짓지 않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요, 부모를 떠난 청소년들이 해야 할 기도며 사회에 첫 출발을 하는 젊은이들이 죄악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기도입니다.

2.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 정의를 찾아봅시다.

약 1:14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마귀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일 내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내고 싶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뜻을 주장하고 싶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3.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무엇일까요?(마 26:41)

4.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시 119:9,11)

5. 사단이 아무리 사람보다 강하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활약하게 됩니까?(욥 2:6; 눅 22:31-32)

6. 그러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고전 10:13)

• 시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

(1) 시련 (test)이라는 뜻입니다.

•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으로 또는 선지자로 쓰시기 위하여 시련으로 단련시켜 연마시키는 경우(아브라함, 욥, 모세, 바울, 엘리야, 야곱, 바울 등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도리어 기쁘게 여겼습니다.)

(2) 유혹 (Temptation)이라는 뜻입니다.

•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정욕에 의하여 살아가도록 마귀는 시험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도록 유도합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 사단은 시험을 했습니다(마태복음 4장).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호와 닮아!!!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